기신론 찬술, 인도인가 중국인가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기신론은 인도의 마명(馬鳴, Asvaghosa)이 지은 논서이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바라문 출신인 진제(眞諦, Paramartha, 499~569)와 실차난타(實叉難陀, Siksananda, 652~710)가 번역한 두 본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 정설처럼 되어 있지만 한편 일부 학자들은 기신론이 인도에서 찬술한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찬술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설은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중국 찬술인 것이 명확하다고 한다.

수(隋)나라 때 비장방(費長房)이 편찬한 〈역대삼보기(歷代三寶紀)〉에는 양나라 태청(太淸) 4년(550)에 진제삼장이 부춘(富春)의 육원철(陸元哲) 집에서 번역했다는 번역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남북조 말엽에 지론학파(地論學派)에 속한 누군가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마명의 이름을 도용해 유포한 것이라 한다.

이러한 중국 찬술설은 당(唐)나라 초기 혜균(慧均)이 지은 〈사론현의(四論玄義)〉와 통일신라 때 진승(珍崇)이 지은 〈탐현기사기〉를 근거로 하여 나온 설이다.

〈사론현의〉는 삼론학파의 주 이론을 주제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논한 논서(論書)인데 사론(四論)이란 용수가 지은 〈중론(中論)〉, 〈대지도론(大智度論)〉, 〈십이문론(十二門論)〉과 그의 제자 제바(提婆)가 지은 〈백론(百論)〉의 네 가지 논서를 말한다. 〈탐현기사기(探玄記私記)〉는 법장의 〈탐현기(探玄記)〉를 다시 보충 설명한 것이다.

불교의 경론들 가운데 아직 범어원전이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기신론도 그렇고 〈능엄경〉이나 〈원각경〉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범어원전이 없는 대부분의 한문 경론들을 중국에서 찬술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이들 한문 경론들이 대부분 역자와 번역한 시기가 밝혀져 명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앞서 말한 〈능엄경〉과 〈원각경〉의 경우 불교학자들에 의해 이미 중국 찬술 경전으로 판명이 났지만, 〈능엄경〉은 원래 중인도 나란타사에 있던 것을 당나라 중종 때인 705년에 인도의 반날밀제(般剌密帝)가 중국으로 가져와 번역하였다고

"563~592년 중국인 찬술해"
日학자 신료 '중국찬술설' 주장
양계초 등 지지하며 학설 확대

하고, 원각경은 북인도 계빈국 출신의 불타다라(佛陀多羅)가 범본을 가지고 중국으로 와서 당 예종 때인 693년에 낙양 백마사에 머물면서 번역하였다 한다.

기신론 중국 찬술설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일본의 불교학자 모츠스키 신쿄(望月信亨)이다. 그는 1902년에 발표한 〈대승기신론 연구〉라는 논문에서 마명이 짓고 진제가 번역했다는 종래의 설을 부정하고 기신론은 563~592년 사이에 중국인이 지은 논서라고 하여 중국 찬술설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이후 중국의 양계초(梁啓超) 1922년에 〈대승기신론 고증〉의 서문에서 모츠스키 신쿄의 중국 찬술설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하였다. 양계초 이후에도 왕은양(王恩洋), 여징(呂徵), 인순(印順)에 이르기까지 중국 찬술설을 인정하는 이는 계속 나왔다.

모츠스키 신쿄가 주장한 중국 찬술설은 문헌 증거를 제시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아직도 기신론은 마명의 저술로 인식되어 있는 편이며 인도찬술이냐 중국찬술이냐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두 설이 양존하고 있지만 중국찬술설은 20세기에 들어와 학계에 제기되었다.

이러한 찬술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신론은 〈중론〉, 〈유식론〉, 〈능가경〉 등 남북조 시대의 다양한 불교사상의 갈래를 종합적으로 회통하여 통일된 체계를 이루고 있는 우수한 논서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고통 속에서 보살의 길을 열라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⑤⓪ 목숨을 희사하는 것

捨身命品第十二(사신명품제십이)

菩薩為一切種智故。大悲心為眾生故。捨身捨命得果報不空。若一切捨身不得果報名空捨身。菩薩捨身為著財為生欲使生羞恥故。菩薩為為生捨身命者。易於慳貪者捨一團飯。菩薩捨於身命為慳貪者生其羞恥。菩薩所以施命為護他命故。何以故。他命ㄴ是我命。菩薩雖捨身命不濟他者。為觀陰身過故。為益為生復更受身。若非大悲何有智者而樂陰身。若無大悲。施味者不能樂處生死。菩薩常樂行施。大悲自在隨受生死身如涅槃樂。(보살위일체종지고。대비심위중생고。사신사명득과보불공。약일체사신부득과보명공사신。보살사신위저재중생욕사생수치고。보살위중생사신명자。이어간탐자사일단반。보살사어신명위간탐자생기수치。보살소이시명위호타명고。하이고。타명즉시아명。보살수사신명불제타자。위관음신과고。위익중생부갱수신。약비대비하유지자이락음신。약무대비。시미자불능락처생사。보살상락행시。대비자재수수생사신여열반락。)

번역

몸과 목숨을 희사하는 것에 대한 품 12

보살은 일체의 지혜 종자를 위하고 대비심으로 중생을 위하는 고로 몸과 목숨을 희사하여 과보를 얻되 헛되지 않습니다. 만약 일체의 몸을 희사하여도 과보를 얻을 수 없다면 공연히 몸만 버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보살은 몸을 희사하여 인색하고 탐욕스런 이에게 수치심을 일게 합니다. 보살이 중생을 위하여 몸과 목숨을 희사하는 것은 인색하고 탐욕스런 이가 한 술의 밥을 버리는 것보다 쉽습니다. 보살이 인색하고 탐욕스런 이로 하여금 수치심이 생기도록 몸과 목숨을 희사하되 보살이 목숨을 희사하는 까닭은 타인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째서 그런가하면, 타인의 목숨이 곧 나의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보살이 비록 몸과 목숨을 희사하여 타인을 구제하지 못한다면, 오음으로 이루어진 몸을 잘못 관찰한 것

생사 고통, 즐거움으로 받는 보살
버리는 기쁨이 진짜임을 알기에

입니다. 중생을 이익 되게 하려고 다시 몸을 받되 만약, 대비심이 아니라면 무슨 지혜일 수 있으며 오음의 육신이 즐겁겠습니까. 만약 대비심이 없다면 보시의 맛이란 것도 생사도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보살은 늘 즐겁게 보시를 행하거니와 대비심으로 자재함 따라 생사의 몸을 받되 열반의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해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곤 한다. 불교용어로 무여열반(無餘涅槃)에 들고 싶다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생사(生死)가 고통인 것은 탐욕과 애착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생사를 벗어나는 일이 꼭 어려운 깨달음이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보살은 오히려 생사의 고통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인다. 다시 몸을 받는 것이 즐겁기만 하다.

왜 그럴까. 이 몸이 너무 좋아서 다시 얻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다시 태어날 때 부유한 곳에 태어날 것을 굳게 믿기 때문일까.

그럴 리가 없다. 다시 이 몸과 목숨을 받아 다른 이들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어 즐겁기 때문이다. 버리는 기쁨이 진짜 맛있는 것인 줄 알기 때문이다. 중생들을 위해 열반을 기꺼이 버리면서 오히려 고통 속에서 참 기쁨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깨달아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라는 가르침은 이제 갖다버려야 할 가르침이 되었다. 고통 속에서 오히려 즐거운 보살의 길을 활짝 열어야만 한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세상 살아가는 것

"세상 살아가는 거 뭐 별 게 아니올시다. 인생이라는 거 삶이라는 거 뭐 별게 아니올시다. 사랑이라는 거 이별이라는 거 뭐 별 게 아니올시다. 잠시 잠시 동안 단막 단막으로 이어지는 몇 마당짜리 연극배우 되어 잠시 잠시 동안 배역과 무대를 바꾸다 보면 뭐 별게 아니 올시다. 세상 살아가는거 뭐 별게 아니올시다. 아! 아! 그런데도 그런데도 뭐 별게 아닌데도 이별은 죽음보다도 더욱 슬프고 사랑은 생명보다도 더욱 깊어라. 그리움은 화두(話頭)되어 뼈에 박히고 지난날은 사리(舍利)보다도 더욱 빛나라.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하고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그리움만 먹고 살았더니 애인이여! 나의 사랑하는 애인이여! 산이 텅 텅 비인 밤에는 바람만 불어도 울고 싶어라. 바람부는 날 밤엔 울고 싶어라."

'세상 살아가는 거 뭐 별 게 아니올시다'는 젊은 시절 청평사에 머물때 쓴 글이다.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게 하고 곱게 늙어감은 또 하나의 수행이다. 주책부림 없이 망령듦 없이 받아들임으로 모두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무리. 마무리를 개운하게 누구에게나 짐이 되지 않게 생명의 아름다운 마감을 연습하고 있다.

인생이라는 것, 삶이라는 거 참으로 별게 아니지만 이별은 죽음보다도 더욱 슬플 수 있고 사랑은 생명보다도 더욱 깊을 수도 있을 터이다. 그리움은 화두돼 뼈에 박히고 지난날은 사리보다도 더욱 빛날 수도 있을 터이다. 산다는 것이 글쎄 맨숭맨숭 하여 그렇고 그럴 수도 있을 터이다. 그러긴 하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열리면 세상은 천지개벽하듯 또 하나의 열린 세계를 펼쳐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살아있음은 또 하나의 기적이자 축복이기 때문이다. 열 손가락, 열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음은 선택된 기쁨의 아름다운 느낌표이다. 살아 있음 그 하나로도 경이로운 기적이자 은혜이며 축복이기 때문이다. 병원에 입원해 있어보라. 환자의 팔 다리가 움직이고 손가락 발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자 축복
긍정적 착각으로 마음 열고 살아라

락이 움직이며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먹고 마시며 똥, 오줌을 배설할 수 있으면 또 하나의 기적이자 축복으로 받아들인다.

볼 수 있으면 눈이 정상이요 들을 수 있으면 귀가 정상이다. 냄새 맡을 수 있으면 코가 정상이요 씹고 말할 수 있으면 입이 정상이다. 웃을 수 있으면 생각이 정상이요 눈물방울 흘릴 수 있으면 감정이 정상이다. 그리운 자가 있으면 기억이 정상이요 화 낼 수 있다면 육체가 정상으로 체크될 터이다. 세상은 커다란 병원이기 때문이다.

생각이 바뀌면 운명만 바뀌는 게 아니다.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며 감사할 일이 널려 있기 마련이다. 움직이는 것은 모두 아름다운 드러난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청평사에 머물던 전전생(前前生)의 젊은이 향봉은 "세상 살아가는 거 뭐 별게 아니 올시다"며 푸념조로 타령을 늘어놨지만 환생(還生)하여 사자암에 머무는 늙은이 향봉은 "세상 살아가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이자 축복"이라며 너스레를 떨고 있다. 자, 선택은 그대 몫이다. 부정적인 착각에서 긍정적인 착각으로 마음 열고 살 일이다.

연인원 7만명이 관람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선무도 공연과 함께하는 골굴사 성지순례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성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 공 연 내 용 :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 선무도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 2년 전액 무료 (홈페이지 참조)

◈ 선무도 공연 ◈
오후 3시 30분 (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 선무도 수련원 ◈
· 서울본원(종로) 02)763-2980
· 서울 강남지원 02)599-5554
· 부 산 본 원 010-2554-8100
· 울 산 지 원 052)276-6271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청소년 심신수양을 위한 템플스테이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겨울캠프

원효스님의 열반 성지! 신라 화랑들의 기상이 담긴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한 제50회 화랑수련회 겨울캠프를 개최합니다. 21세기 새로운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신화랑 캠프! 자연속에서 공동체 수행생활을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청소년 화랑수련회와 함께 하세요.

언 제 2016년 12월 25일 ~ 2017년 1월 14일
모집인원 60명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5시까지 입교. 토요일 12시 퇴교
대 상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평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운영)
준비물 세면도구, 수건, 필기도구, 운동복, 운동화, 방한모, 방한장갑, 목도리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수련회비 1주 - 35만원 / 2주 - 70만원 / 3주 - 9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예약 문의 054-775-1689 / 744-1689
www.sunmudo.com
♣ 수료식은 골굴사 선무도 대학에서 토요일 11시에 진행합니다.

※ 기본 프로그램 :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민요, 불교강의, 108배
※ 영 어 캠 프 : 선무도를 수행하는 원어민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영어캠프
※ 부모님께 효도마사지 실습 및 예절교육
※ 매주 색다른 경주문화유산 탐방 : 감은사지, 문무대왕릉, 기림사, 경주국립박물관 양남 주상절리길 및 감포깍지길 탐방
※ 자 아 성 찰 : 자비관 명상, 자자회, 자기바라보기



1500년 전통사찰 · 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학교